

새로운 조경수 산딸나무

이원열/임업연구원 연구관



전체수형

학명 : *Cornus kousa* Buerg.
영명 : Korean Dogwood
한명 : 四照花
일명 : 야마보우시 야마그마

산딸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며 나무높이 7-15m, 가슴높이 직경 20-70cm로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 중부이남의 해발 300-500m에 주로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도 분포한다.

분류 및 생태적 특징을 보면, 잎은 타원형으로 마주나고, 길이 5-10cm, 폭 3-6cm의 점첨두(漸尖頭), 예저(銳底)로 가장자리에 톱니모양의 거치가 없지만 간혹 파도모양의 거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측맥은 4-5쌍으로 활처럼 굽어지며 잎의 뒷면 맥액에 갈색털이 밀생한다. 꽃은 6월, 전년에서 자란 가지끝에서 백

색으로 피는데 4개의 흰 총포가 발달하여 꽃잎처럼 사방으로 퍼져서 나무전체가 하얗게 뒤덮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열매는 9-10월에 딸기모양의 진분홍색으로 익고, 직경 1.5-2.5cm로서 그 속에 여러개의 종자가 들어 있고 감마가 있어 식용으로도 한다.

수형은 가지가 층을 이루어 수평으로 퍼지는 우상형(羽狀形)이고 수피는 껍질이 벗겨지며 갈색이고 둥근 피목(皮目)이 있다.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耐寒性)이 강하고 음지에서 잘 자라며, 산복사면 하부의 토심이 깊고 비옥적윤지 또는 다소 습기가 있는 완경사지(緩傾斜地)에 많이 분포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햇볕이 잘드는 능선부(稜線部)의 건조지에도 분포하는 등 생육조건이 타 수종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뿌리체계는 천근성(淺根性)으로 집단 생육을 하지 않고 점생(點生)한다.



꽃

산딸나무와 같은속에는 수형이 산딸나무와 흡사하게 우상형(羽狀形)이며 가지가 계단모양으로 수평으로 퍼지는 층층나무(*C. controversa*)와 전국에 분포하는 말채나무(*C. walteri*), 중부이남에 자라는 곰의 말채(*C. macrophylla*), 봄 일찍 꽃이피는 소교목인 산수유나무(*C. officinalis*), 가지가 가을부터 붉게 변하는 흰말채나무(*C. alba*), 가지가 노란색인 노랑말채나무(*C. alba* 'Aurea'),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미국에서 도입된 꽃산딸나무(*C. florida*) 등 여러종이 있다.

번식은 삽목도 가능하지만 대개 실생을 주로 한다. 과실은 성숙하면 쉽게 낙하하므로 낙하전에 어린 가지(小枝)에서 직접 채취하여 과육을 물로 씻어 제거한 후 정선한다. 최근 2년간 조사한 종자품질(잠정치)은 순량을 94% 발아율 40~55%, 효율 35~50%, 10당 입수는 약 9,500립, 10당 무게는 약 580g, 1kg당 입수는 약 17,000립이다. 산딸나무 종자는 건조를 매우 싫어하므로 정선 직후 직파(10월하순~11월 초순)하거나 젖은 모래와 혼합하여 보습저온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주로 3월 하순)에 파종한다. 파종량은 1m²당 0.07~0.10정도 흩어 뿌리며 대부분 파종 이듬해 봄에 발아하는데, 첫해에 20cm내외로 자란다. 1년생 묘를 10월말경에 굴취하여 가식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1m²당 25분 가량 이식하여 2년생(1-1묘)으로 자라면 50cm정도 되지만 조경용으로는 3년생이상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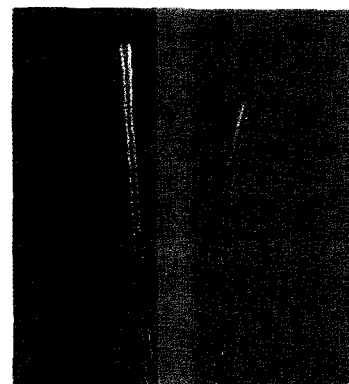
묘



줄기(수피)



열매



어린가지

산출한다.

삽목의 경우는 초봄에 휴면지 삽목을 해도 되고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봄에 자라난 가지로 녹지삽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IBA 10-25ppm 수용액에 24시간 침적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식재와 이식은 보통 삽목묘, 접목묘 모두 3년생이상의 것을 이른 봄 싹트기 전이나 낙엽이진 늦가을에 심으며, 식재 구덩이는 60-70cm의 깊이로 파고, 밑에 퇴비와 계분(鷄糞)을 넣고 흙을 5cm의 두께로 덮은 다음 묘목을 심는다.

포지 양묘한 나무는 이식이 잘되나 흉고직경 12cm이상의 큰 나무나 산채목은 뿌리가 거칠기 때문에 이식 활착이 어려우므로 전년도 뿌리돌림작업으로 세근을 발생케하여 이식하는 것이 안전한다.

굴취할때는 뿌리의 건조에 유의해야하고 가지숙음, 전정을 하여 균형을 유지시키고 새끼나 녹화 마대로 줄기를 감아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며, 활착후에는 자연수형을 스스로 유지하므로 별다른 전정은 요하지 않는다.

병해는 원예품종들과는 달리 거의 없는 편이다.

조경적 개발가치는 꽃과 수형이 아름다워 정원수, 공원수, 가로수 등으로 적합하며 특히 미국산 꽃산딸나무 및 기타 원예품종에 비해 공해, 병해, 건습에 상당히 강하고, 분재용으로도 개발 가치가 있어 우리나라의 여느 수종보다도 전망이 대단히 높은 수종이다. ♣